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일환



사례1) 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인 장모씨 부부는 올해 초 생계비 지원이 월 36만원에서 22만원으로 줄었다.

자의 소득·재산 정보가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있다. 특히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자료는 그동안 파악되지 않았던 아르바이트로 번 돈까지 드러난다.

기초수급자를 울게 하지 말라

구청·동사무소의 엄격한 기준 적용도 수급자들의 목을 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수급자들에게 돌아갈 복지예산은 크게 위축됐다.

배려와 보살핌 우선돼야

행복에이 구현하는 투명한 복지 그림 짜야 한다. 하지만 투명한 복지가 수급자들의 속사정을 잣대로 짤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지난해 1월 재산과 소득을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행복에이)이 가동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은펜클럽



심상돈

진료실에서 환자를 볼 때 의사도 사람인 지라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환자도 드러나고 있다.

진료 거부

헤서는 매진 재판부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며, 의료현장에서 진료 거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극까지의 법외 판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의협의 연구 정도를 살펴볼 때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에 대한 논의는 3가지 범주에서 얘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평한 복지란 공급자 중심일 때 실패한다. 고된 혜택만이 성공의 키워드가 아니다. 공평한 복지의 성공 키워드는 배려와 보살핌이다.

수급자와 스किन심

물론 수급자 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파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방법은 분명히 있다.

정부는 내년 기초수급자를 올해보다 8만명을 더 줄이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다. 무더기 수급 탈락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욕죄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수급자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을 좌절하게 놔둘 수 없는 일 아닌가.

최소한 일선 복지창구에서라도 희망을 엿보게 해달라. 그들이 삶에 치이고 출대에 치어 울지않게 해달라. 단 5분만이라도 그들의 가슴 아픈 사연에 귀기울여달라.

<방송보도부장 겸 여론매체부장>

시설

초토화된 광주·전남, 복구·지원 시급하다

초강력 태풍 '볼라벤'이 휩쓸고 간 광주·전남지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였다. 역대 최악의 태풍인 '매미'나 '루사'와 맞먹는 위력을 가진 볼라벤이 28일 오전 초속 50m로 서해상에 북상하면서 곳곳을 초토화시켰다.

특히 태풍을 가장 먼저 접한 광주·전남지역은 위력이 그대로 가해지면서 인대고 속사정을 들어주는 것이 시작이다. 들어주고 또 들어주다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꼭 나온다.

최소한 일선 복지창구에서라도 희망을 엿보게 해달라. 그들이 삶에 치이고 출대에 치어 울지않게 해달라. 단 5분만이라도 그들의 가슴 아픈 사연에 귀기울여달라. 작은 배려와 귀기울임이 그들이 다시 자활의 동력을 얻는 시작임을 믿는다.

교과부·시교육청 갈등 언제까지 갈 건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에 대한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와 관련, 일선 학교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다. 가해사실을 전체 학년에 대해 기재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고교 3학년 이외에 기재를 거부한 광주시교육청이 충돌하면서 대부분의 학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려 고3을 제외한 학생들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록을 무기한 보류했다. 교과부가 초·중·고 전 학년에 대해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시책을 일부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때 따라 교과부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 대해 감사 검토 등의 방침을 구두로 전달했다고 한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직접 내려보내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등 대혼란을 겪었다. 양식장도 폐허 그 자체였다. 순간 최대풍속 초속 51.8m의 강풍이 몰아친 원도 앞바다의 전복 양식장의 경우 시설물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다.

특히 태풍을 가장 먼저 접한 광주·전남지역은 위력이 그대로 가해지면서 인대고 속대밭이 됐다. 전남도내 배와 사과 등 과수단지의 낙과율이 무려 80%가 넘는다는 재앙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기초수급자를 올해보다 8만명을 더 줄이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다. 무더기 수급 탈락이 불을 보듯 뻔하다. 12월 대선 결과에 따라 복지예산 편성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의 톤론 결정이 없는 한 복지예산의 대폭 증액은 기대나답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에 대한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와 관련, 일선 학교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다. 가해사실을 전체 학년에 대해 기재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고교 3학년 이외에 기재를 거부한 광주시교육청이 충돌하면서 대부분의 학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려 고3을 제외한 학생들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록을 무기한 보류했다. 교과부가 초·중·고 전 학년에 대해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시책을 일부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때 따라 교과부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 대해 감사 검토 등의 방침을 구두로 전달했다고 한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직접 내려보내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때 따라 교과부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 대해 감사 검토 등의 방침을 구두로 전달했다고 한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직접 내려보내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無等鼓

고대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전략가들의 책략을 편집한 전국책(戰國策)의 초책(楚策)편에 보면 호가호위(狐假虎威)의 유래가 나와있다.

은 불가피하고 또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또, 그들 곁에 둘러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강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것 역시 인간사회의 어쩔 수 없는 단면이기도 하다.

전국시대 당시 강대국이었던 초나라의 선왕(宣王)이 대신들에게 물었다. "북방의 나라들이 우리의 재상인 소해출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이에 강을(江乙)이라는 신하가 답했다. "어느 날 호랑이에게 붙잡힌 여우가 말했다. '나는 천제로부터 백수의 왕에 임명됐으니 나를 잡아먹으면 천벌을 받을 것이네. 내 말이 거짓말이라 생각거든 나를 따라와 보게. 나를 보면 모두가 두려워서 달아날 테니.' 여우의 말을 들은 호랑이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과연 만나는 짐승마다 모두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짐승들은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달아난 것이지만, 호랑이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북방의 제국이 소해출을 두려워하는 것은, 실은 그의 뒤에 있는 왕의 군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은 불가피하고 또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또, 그들 곁에 둘러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강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것 역시 인간사회의 어쩔 수 없는 단면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세상살이가 한 꺼풀 벗겨지고 나면 드러나는 것은, 물론 모두는 아니겠지만,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부자와 권력자의 대부분은 돈과 권력이라는 호랑이를 뒷세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호가호위(狐假虎威)



아말로 삼전병이다. 과연 만나는 짐승마다 모두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짐승들은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달아난 것이지만, 호랑이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북방의 제국이 소해출을 두려워하는 것은, 실은 그의 뒤에 있는 왕의 군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호랑이에게 붙잡힌 여우가 말했다. '나는 천제로부터 백수의 왕에 임명됐으니 나를 잡아먹으면 천벌을 받을 것이네. 내 말이 거짓말이라 생각거든 나를 따라와 보게. 나를 보면 모두가 두려워서 달아날 테니.' 여우의 말을 들은 호랑이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과연 만나는 짐승마다 모두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짐승들은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달아난 것이지만, 호랑이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북방의 제국이 소해출을 두려워하는 것은, 실은 그의 뒤에 있는 왕의 군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기고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 도전



안기석

올 여름 기록적인 열대야에도 우리에게 지치지 않은 에너지를 불어넣어 준 것은 런던에서 전해져오는 우리 선수들의 감동의 드라마였다. 그중에서도 박태환 선수의 400m 자유형 경기 실력판정 반복으로 천국과 지옥을 오갔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서 우리 광주에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먼저 광주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유니버시아드의 유산을 활용하는 경제대회이다. 유니버시아드 개최를 계기로 우리 광주는 남부대 수영장,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 등 국제대회 규격에 맞는 최첨단 수영장을 갖추게 되며 2019수영대회는 경기장 신축 없이 최소비용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들 7000명이 참가하는 대회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본 대회인 선수권대회에 곧바로 이어 수영 마스터즈대회에 1만 3000여 명이 광주에 온다. 경쟁과 기록이 중시되는 선수권대회와 달리 아마추어 동호인 대회라고 할 수 있는 마스터즈 대회는 지금까지는 선수권대회와 별도로 개최되었으나 2015년도 러시아 카잔대회부터는 수영선수권대회에 이어서 개최하도록 의무화되면서 전세계 수영 동호인들이 보름가람 머물게 된다. 따라서 광주에서 최고 가치를 보유한 국제대회가 한 달 가량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유니버시아드가 대학생들의 경기

따라서 기존 대회의 시설을 활용한다는 부분은 광주의 유치 전략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대구는 유니버시아드에 이어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치렀고, 2013년도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할 예정인 러시아 카잔은 이미 2015년도 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해놓은 상태이다. 이렇듯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일회성이 아닌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또한 광주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는 200여개국의 선수와 임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무료로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윤석, 논설주간 김광호, 편집국장 김광호.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